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6.11.19.(목) 15:00	배포	2026.11.19.(목)

담당부서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연금혁신팀	책임자	실 장	김기복	(02-3145-5180)
		담당자	팀 장	황찬홍	(02-3145-5190)
			팀 장	석진우	(02-3145-5186)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 간담회 개최

–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역행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 대응 –

– 퇴직연금 시장의 내실 있는 성장 및 투명한 정보제공 당부 –

Ⅰ 간담회 개요

□ 금융감독원은 ’26.11.19.(목) **4대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

○ **DB형 원리금보장상품**의 **연말 변칙적 금리** 제공 및 **연금저축 특별이익 제공** 등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 **장기 투자 문화 확산** 및 통합연금포털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

☑ **일 시** : ’26.11.19.(목) 15:00~16:00

☑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

☑ **주요참석자**

○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 김기복 연금감독실장 등

○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임원

○ **(퇴직연금사업자)** 주요 은행·증권·보험 사업자(6개사) 임원 등

II 주요 논의내용

□ **서재완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가입자의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DC형으로의 전환이 전년대비 118.1% 증가('25.1~7월 15.6만명 → '26.1~7월 34.0만명)하는 등 직접 운용에 대한 관심 증대

○ 특히,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단기 영업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사항을 당부

* '26.3분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547.3조원, 215.4조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감소(△11조원, △9.4조원)하고, 수익률도 저조('26.3분기 기준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은 6.6%로 '26.2분기 수익률 17.9% 대비 크게 감소)

1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역행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장기투자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

○ **'장기투자'**는 가입자가 사업자를 믿고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나, **매년 반복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가입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음

□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야 하듯**, 퇴직연금 사업자도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힘써야 한다**며,

○ 말로는 장기투자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나무에 열린 **단기 과실**만 **따고** 물은 주지 않는다면 **결국 나무 자체**가 **말라 죽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 **단기적인 영업성과**에만 **집착**하여 시장의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의 연말 만기 집중을 틈타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 고금리**를 **제공**하거나,

참고 **(검사 조치 사례)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주로 **큰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적극 제시**하고, 영세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

사용자 규모별 운용 수익률(A사)[1)]



1) '21~'24.7월 A사 DB 사용자 수익률 산술평균

중소형사 고수익률 상품 가입 현황(B사)

제시일	당월 최고금리 정기예금(금리)[1)]	회사별 상품가입 비율[2)]	
		중소형사	대형사
'22.12월	A 예금(5.6%)	**5.5%**	94.5%
'23.12월	B 예금(4.15%)	**6.5%**	93.5%
'24.12월	C 예금(3.4%)	**10.0%**	90.0%

1) 해당 월 제시된 최고금리 정기예금 상품 기준
2) DB 사용자 중 중소형사(50인 미만 기업) 비중은 약 20%에 해당하나, 고수익률 상품 가입건은 5~10% 수준

○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특별이익 제공*** 등 **가입자의 단기 금전 이익 추구**와 **사업자 간 자금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가 **매년 반복·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다수의 사업자(14개사)가 연금저축펀드 유치를 위해 순입금시 1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

□ 수익률 제고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닌, 이러한 제 살 깎아 먹기식 불건전 영업행위는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이자,

○ 사적연금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 시점에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역행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규사항 확인 시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강조

○ 결국,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가입자의 장기투자 문화 정착은 각 **사업자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지**

2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사업자의 사명감 있는 역할 수행 필요

□ 사업자는 **가입자 노후**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자의 단기 실적이나 수익 추구를 넘어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

○ 이에, 사업자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진행중인 **'오래오래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투자 문화**가 **연금시장 전반**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

○ 캠페인에서 사업자는 **가입자**의 **장기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이제는 **실천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 **장기 자산 배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가입자 대상 **투자정보 제공**과 **교육 강화** 등 사업자별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

3 가입자(투자자) 관점의 투명한 정보제공 및 공시제도 개선

□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과 운용성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

○ 통합연금포털 공시정보는 가입자의 사업자별·상품별 **비교, 선택**을 **지원**하는 **핵심 정보**인 만큼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 **통계 정보**의 **과대 입력** 및 **누락** 등 **동일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

* 연금저축內 투자 불가 상품인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판매' 상태로 오기재되거나,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1.8조원 과대 입력되는 등 최근 5년간 공시오류가 302건에 달함

○ 특히, 사업자의 통계 정보를 최초로 집적하는 각 **금융협회**에서도 이중 검증 등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여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길 요청

○ 또한, **가입자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항목 및 공시방식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줄 것을 당부

Ⅲ 참석자 발언 요지

□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정책 방향**에 **공감**

○ 연말 원리금보장상품의 변칙적인 금리 제공 및 연금저축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영업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 **'오래오래 캠페인'의 취지**가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기투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가입자 안내**와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또한, 통합연금포털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및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

Ⅳ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투자 문화 확산**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

○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하고, **가입자 관점**의 **투명한 정보제공** 및 **공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 매년 반복 · 지속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주요 사례

1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소홀히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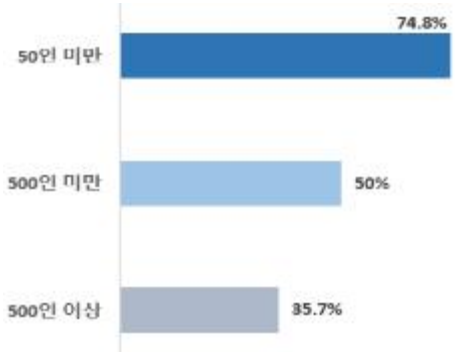
2 '만기재예치'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 소홀

○ 만기 도래 시 **더 유리한 대체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기존 상품**에 **반복 재가입**하도록 방치하는 행위

관련 사례

■ C사(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사용자의 75%가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비교·분석 없이 동일 상품으로 장기 가입하고 있음에도 상품 만기 시점에 이들 기업에게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상품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기업 규모별 만기재예치 현황(C사)



3 사용자에게 유리한 상품제시 노력 미흡

○ 계열사 상품 등 **불리한 상품**을 **장기간 선택**하는데도 **더 유리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행위**

관련 사례

■ D사(퇴직연금사업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D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B사의 계열사 상품이 동일 신용등급의 타사상품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D사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았습니다.